

[기고]봄철 해빙기 산행을 주의하세요

NEWSis() | 기사입력 2014-03-24 09:47

【인제=뉴스시스】

봄맞이 첫 산행을 갔다가 떨어진 낙엽 밑 보이지 않는 얼음판에 미끄러지거나 따뜻한 기온으로 속이 얼고 표면이 녹은 땅에 발을 딛는 순간 미끄러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기후변화가 자주 일어나는 산에서의 봄은 가장 변덕스럽고 계절의 구분이 되지 않는 시기라고도 한다.

봄은 대체로 등산 시즌이 시작되는 계절이라 많은 등산객이 산으로 몰려든다. 그런데 낮은 지대에서는 봄꽃이 피고 따뜻한 봄기온이 완연해 사진도 찍고 나들이 나온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반면 1000m가 넘는 높은 지대는 돌풍이 불고 눈이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 등산객들의 얼굴 또한 힘들고 지쳐 보이게 된다. 그래서 봄철 산은 하루에도 사계절을 다 볼 수 있는 계절이다.

그러면 해빙기 봄철 산행을 하려면 어떤 장비가 필요할까?

일단 일교차가 10도 이상 차이가 나고 날씨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식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물론 보온에 필요한 의류와 방풍복, 방수복, 스패츠, 장갑, 배낭커버, 아이젠 등을 챙겨야 한다. 봄철 특유의 짙은 안개는 방향감각과 원근감을 혼란스럽게 해 자칫 길을 잃게 할 수 있으므로 나침반을 준비하는 것도 좋다. 건조한 날씨와 황사현상, 흙먼지로 인해 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선글라스로 눈을 보호하고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등산화도 준비해야 한다.

그렇다면 산행 중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해빙기에는 실족보다는 발목을 빼거나 무리한 산행으로 인해 발이 저리는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그 부분에 부목을 대거나 손수건으로 발목을 압박해 천천히 하산하는 게 구조대를 더 빨리 만나는 방법이지만 절대 무리하지는 않는다. 혹여 빠가 보이는 개방성 골절일 경우에는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평소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 고령자는 대부분 응급상황 발생이 많이 일어나므로 경사가 완만하고 높이가 낮은 산을 선택해 산행해야 한다. 길을 잃거나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시 저체온증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에 체력을 소모하지 않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체온을 유지하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모두 해빙기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즐겁고 신나는 봄철 산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 습관을 가져야겠다.

/강원 인제소방서 구조구급담당 김명규 소방경

★ 뉴시스 뉴스, 이젠 네이버 뉴스 스탠드에서도 만나세요

★ 손 안에서 보는 세상, 모바일 뉴시스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기사주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3&aid=0005749135>
